

함평학다리고, 총동문장학재단에서 후배사랑 전통 이어가

선배들의 자발적 모금 통해 매년 장학금 전달해 입학성적 우수한 신입생 32명 대상, 장학금 수여

함평학다리고(교장 김태성)는 학다리중·고총동문장학재단(이사장 전경남)이 매년 3,000만원 상당 장학금을 학교에 지원하며 후배 사랑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학다리중·고총동문장학재단에서는 매년 선배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모교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4일 입학식에서는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을 32명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고 더불어 학습교

재 및 온라인 강의를 전달하였다. 또한 장학금을 받지 못한 모든 학생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씩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여 학교와 선배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1학년 학생은 "자랑스러운 선배님들과 모교 후배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명문 함평학다리고로 신입생으로서 큰 감동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반드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선배님들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2017년 공립으로 전환 당시 학교법인 학교의숙의 기본재산 출연금을 전남미래교육재단에 기탁하면서부터 매년 지급되는 1,500만원의 장학금 역시 지역 우수 인재를 유지하고,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017년 공립전환 이후 2018년 함평여고와 나산고를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한 함평학다리고는 우수한 진학실적과 더불어 지난 해 전라남도교육청 일반고 우수프로그램 운영교로 지정되는 등 지역 명문고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시교육청-국립나주병원 업무협약

광주시교육청이 13일 국립나주병원과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보호자·교원 상담 ▲담당 교사 연수 및 컨설팅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기타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같이 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조선대학교병원과 병원형Wee센터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개소를 준비 중이며 앞으로 상담·진단부터 전문적 심층치료, 대안교육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해 위기학생 상담 및 평가, 교사·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문제 자문과 교육 등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슬비 기자

진도교육청, '신비의 바닷길' 홍보 부스 운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오미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 『제44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화동 공연장(고군면) 일원에서 교육홍보 부스를 운영해,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2024』 및 『모두가 보배로운 숲은 진도교육』을 홍보했다. 홍보 부스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장을 찾은

학생·학부모·지역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특색있는 작은학교' 프로그램, '학교폭력 없는 청정 진도교육' 등 진도교육지원청의 주요 교육 사업에 대한 홍보에 그 목적이 있다.

진도=조상용 기자

전남교육청, 학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 체계 강화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갖고 맞춤형 지원 방안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7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2024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를 열고, 전남 특수교육정책 이해를 토대로 한 맞춤형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강사, 치료사 80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운영 사업을 검토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민원인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안 등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특히 이번 연수는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매뉴얼 △ 에듀파인 사용법 △ 복무에 대한 숙지와 센터 운영 사례 공유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진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처럼 중등교육과정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들이 있기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지역 중심 특수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면 기자

영암 덕진초, 오케스트라 창단과 새로운 음악여정의 시작

학생 27명과 함께, 덕진오케스트라 창단식 개최



영암 덕진초등학교(교장 신선화)는 지난 11일 덕진관에서 3-6학년 학생 27명과 함께 새로운 음악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덕진오케스

트라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덕진오케스트라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 현악기를 주로 다루며 함께 연주하는 팀위

크와 더불어 음악적 감각을 함양하는데 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덕진초등학교와 MOU 협약을 맺은 전남문화예술협회 홍의현 대표가 참석하여 "덕진오케스트라 창단은 학생들의 예술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학생들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응원했다.

오케스트라 단원인 6학년 이윤정 학생은 "음악으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연주하며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 기쁘요."라는 즐거운 소감이 전했다.

학생들이 덕진오케스트라를 통해 음악의 세계를 더 깊게 탐험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